

# 디그나가의 니야야학과 지각론 비판

박대용(동광)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연구초빙교수)

## 국문 초록

이 논문의 목적은 디그나가(Dignāga, ca. 480-540)의 *Pramāṇasamuccaya*(*vr̥tti*) (이하 PS(V)) 1장 「현량장」 17~20계송과 자주에 나타난 니야야학과(Naiyāyika)의 지각 정의에 대한 비판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 자료는 200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학술원의 에른스트 슈타인켈너(E. Steinkellner)에 의해 새롭게 복원된 범본(梵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디그나는 상대적으로 전반부에 속하는 PS(V) 1.1-12에서 자신 혹은 자파(自派)의 지각 정의(*pratyakṣa-lakṣaṇa*)-PS 3cd, “*pratyakṣam kalpanāpoḍham nāma jātyādiyojanā* ||”(지각은 분별을 배제한 [직접인식이고, 분별이란 명칭과 종류 등이 결합한 것이다.)-를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PS 1.12 계송에서 인식수단과 결과, 그리고 작용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비별체설(非別體說; 유식의 ‘동시지각설’)을 내세운다. 이어지는 계송과 자주에서는 『논궤』(13~16계송) ⇨ 니야야학과(17~20계송) ⇨ 바이췌시까학과(21~24계송) ⇨ 상키야학과(25~33계송) ⇨ 미망사학과(34~44계송) 순으로 타 학파들의 지각 정의를 주도면밀하게 분석하고 비판을 가한다. 특히 그는 PS(V) 1.17-20에서 니야야학파의 『니야야수뜨라』(*Nyāyasūtra*, 이하 NS)-NS 1.1.4, “*indriyārthasannikarṣōtṭpannam jñānam avyapadeśyam avyabhicāri*

vyavasāyātmakam pratyakṣam ||(지각은 감관과 대상의 [직접] 접촉을 통해 발생한 인식이어서 (1) 표현 불가능하고 (2) 착오가 없으며 (3) 결정을 [그 본성으로 한다.]"-에 나타난 지각 정의를 소개하고 이 세 가지 한정사들이 갖는 오류(doṣa)들을 통렬히 지적함으로써 그들의 지각 이론이 틀렸음을 입증한다.

본 연구는 디그나가가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니야야학파의 NS 1.1.4 내용을 중심으로 선행 검토하고, 이어서 범본 PS(V) 1.17-20에 나타난 디그나가의 비판을 집중적으로 살필 것이다.

주제어 : 디그나가, 밧차야나, 니야야학파, 뿌라마나삼웃짜야(브릿띠), 니야야수뜨라, 지각[현량], 접촉

## I. 들어가는 말

이 연구의 목적은 디그나가(Dignāga, 陳那, ca. 480-540)의 『뿌라마나삼웃짜야(브릿띠)』(*Pramāṇasamuccaya*(*vr̥tti*), 集量論, 이하 PS(V)<sup>1)</sup>) 제1 <현량장(現量章)> 17~20 계송과 자주에 나타난 니야야학파(Naiyāyika; 正理學派)의 지각론에 대한 비판 내용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디그나가가 만년에 저술한 PS(V)는 6장-현량장·자비량장·타비량장·[사]유례장·아포하장·오난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가운데 첫 장에 해당하는 <현량장>은 총 44개 계송과 자주로 이루어져 있다. <현량장>에서 비교적 전반부에 속하는 1~12 계송은 디그나가 자신의 지각 이론을 경량부(8송)와 유가행파(9~10송)의 입장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고, 후반부 13~44계송은 타 학파의 이론들을 차례대로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실상 『논궤』(*Vādaśāstra*, *Vādaśāstra*)에 대한 비판(13~16송)을 제외하면, 디그나가의 첫 비판 대상은 니야야학파이다(17~20송). 이 이유는 결론에서 보도록 하자. 여기서 그는 여타 학파와 달리 네 계송 정도만 짧게 할애하면서 『니야야수뜨라』(*Nyāyasūtra*, 이하 NS)<sup>2)</sup> 1.1.4에 나타난 지각 정의(*pratyakṣa-lakṣaṇa*)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한 비

1) PS(V) : PSV *ad* PS

2) 가우따마의 『니야야수뜨라』는 총 5편(*adhyāya*)과 각 편마다 2장(*āhnikā*)으로 구성되어 있다. 필자가 참고한 NS는 Vindhyaśvarī Prasad Dvivedin이 1986년 편집한 *Nyāya-varttikam: A gloss on Vātsyāyana's*

판을 전개한다.

〈표1〉 니야야학파의 주요 논서 목록

순서	저자	수뜨라 경명
①	가우따마(Gautama, 50-150) <sup>3)</sup>	<i>Nyāya-sūtra</i> (『正理經』, NS)
②	밧차야나(Vātsyāyana, 350년경)	<i>Nyāya-bhāṣya</i> (『正理疏』, NBh)
③	웃도따까라(Uddyotakara, 550-610)	<i>Nyāya-vārttika</i> (『正理評釋』, NV)
④	바짜스빠띠미슈라(Vācaspati Mīśra, 11세기)	<i>Nyāya-vārttika Tātparyāṭika</i> (『正理評釋 眞義註』, NVTT)
⑤	우다야나(Udayana, 1025-1100)	<i>Nyāya-vārttika Tātparya-parīśuddhi</i> (『正理評釋 眞義註 解明』, NVT-P <sup>0</sup> )
⑥	발라바짜리아(Vallabhācārya, 12세기)	<i>Nyāya-līlavatī</i> (『正理遊戲』, NL)
⑦	계사와미슈라(Keśva Mīśra, 13세기)	<i>Tarka-bhāṣā</i> (『正理解說』, TBh)

위 〈표1〉에서 보듯이, 디그나가가 생전에 인용할 수 있었던 니야야학파의 수뜨라는 ①, ② 두 종류로 보인다. 디그나가의 사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웃도따까라(Uddyotakara, ca. 550-610)는 『니야야바룻따까』(*Nyāyavārttika*, 이하 NV)를 저술해 디그나가의 니야야학과 지각론 비판에 대한 첫 반론을 펼쳤다.<sup>4)</sup> 이러한 반론이 있을 후, 디그나가 계승자들 사이에는 수많은 후속반론(uttarapakṣa)이 진행되었다. 대표적 논사는 다르마끼르띠(Dharmakīrti, 法稱, ca. 600-660)와 지넨드라부띠(Jinendrabuddhi, ca. 725-785)를 거론할 수 있다. 이에 필자는 본 연구의 주 자료인 디그나가의 PS(V) 이외에, 보조 자료로 〈표1〉에서 소개한 ①, ②, ③, ④ 수뜨라와 위 불교 논자들의 논서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 자료는 2005년 오스트리아 비엔나학술원(ÖAW)의 에른스트 슈타인켈너(E. Steinkellner)에 의해 새롭게 복원된 범본 텍스트를 저본으로 했다. 티벳역 PS(V)<sub>K</sub> 1 *Dignāga's Pramāṇasamuccaya(vṛtti)*. P. 5072, Ce 93b4-109a1를 보충 자료로

*commentary of the Nyāya-aphorisms*(Delhi: Eastern Book Linkers)에서 발췌하였다. 한편 GRETEL의 [http://gretel.sub.uni-goettingen.de/gretel/1sanskrit/6sastra/3phil/nyaya/nysvbhu .htm](http://gretel.sub.uni-goettingen.de/gretel/1sanskrit/6sastra/3phil/nyaya/nysvbhu.htm)(2021.9.19. 검색)에서 나머지 수뜨라들을 인용했다.

3) 가우따마는 악사빠다(Akṣapāda)라고도 불리는데, 이 때문에 니야야 철학을 악사빠다 철학이라고도 부른다. 또 니야야 철학은 Nyāyavidyā, Tarkaśāstra, Ānvīkṣikī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 S.C. Chatterjee & D. M. Datta, 김형준 역 1999, 175 참조.

4) 戶崎宏正, 三枝充惠 編 1974, 154-155 참조.

하고, 나아가 핫토리(1968)의 미주 해설도 참고로 하였음을 밝힌다.

선행 연구로는 일본학자 핫토리 마사아키(服部正明)가 쓴 기념비적 저서 *Dignāga, On Perception*(1968)의 본문(pp.36-41), 미주(pp.121-133), 티벳역 PS(V)<sub>v</sub> · PS(V)<sub>k</sub> 교정본(pp.190-199)이 대표적으로 있다.<sup>5)</sup> 또한 그는 불교인식논리학의 종합해설서인 『講座 仏教思想 第二卷 認識論 論理学』(1974) <제3장 중기대승불교의 인식론> 편에서 NS 4.2.26-37을 근거로 한 니야야학파의 중관사상 비판과 디그나가의 타 학파 비판을 소개했다.<sup>6)</sup> 도사키 히로마사(戸崎宏正) 역시 위 단행본의 <제4장 후기대승불교의 인식론> 편을 맡아, 디그나가 이후 타 학파들과 펼친 지각의 진위 논쟁을 상세히 설명했다.<sup>7)</sup> 서구에서는 비말 그리슈나 마티랄(B. K. Matilal)이 여러 단행본(1986 · 2002 · 2005)을 통해 NS 1.1.4에 나타난 세 개의 한정사들의 의미를 비교적 쉽게 소개했다.<sup>8)</sup> 최근에는 피터 아담슨(P. Adamson)과 조나단 가네리(J. Ganeri)가 공저로 발간한 *Classic Indian Philosophy*(2020)에도 니야야의 지각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sup>9)</sup> 주목할 만한 국내 연구로는 이지수의 논문(1993 · 2003a · 2003b)이 있다.<sup>10)</sup> 다만, 그가 소개했던 니야야 학파의 인식방법론은 비교적 후대의 니야야 수뜨라 군(群)에 속하는 위 <표1>의 ⑤, ⑥, ⑦을 중심으로 하였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음 II장에서는 디그나가가 비판의 주 대상으로 삼았던 NS 1.1.4와 관련한 니야야 학파의 지각과 관련 내용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III장에서는 PSV ad PS 1.17-20에 나타난 디그나가의 비판을 축자적으로 검토해 볼 것이다.

## II. 니야야학파의 전통적인 지각 정의와 해석

니야야 논서는 논외의 주제에 대한 “열거(uddeśa) → 정의(lakṣaṇa) → 비판(parīkṣā)”

5) PS(V): Tib. *Tshadma kunlas btuspa'i 'grelpa* (체마꾼래띠빠델빠)

K본(本): 까나까바르만(Kanakavarman)과 띠빠쉐랍(Dadpa śesrab), P. 5700/5702

6) 服部正明, 三枝充憲, 編 1974, 103-143; 심봉섭 역 1995, 103-142.

7) 戸崎宏正 1974, 145-186; 심봉섭 역 1995, 143-183.

8) Matilal 1986, 228-229; 2002, 182-200; 2005, 3-5.

9) Adamson & Ganeri 2020, 175-181. (26. What You See Is What You Get: Nyāya on Perception) 여기서 NS 1.1.4개송 영역(英譯)은 다음과 같다. “A perceptual experience is that which is produced from ‘contact between sense-faculty and object; is a ‘non-verbal (*avyapadeśya*)’ awareness; does not deviate or err from its object (*avyabhicāra*); and is ‘definite (*vyavasāyātmaka*)’ in character.”

10) 해당 논문들은 뒤 참고문헌을 참고

의 3단계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도철학에서 말하는 정의란, 디그나가의 아포하(apoha) 이론처럼, 말하고자 하는 것 이외의 다른 정의들에 대한 배제나 차별을 의미한다.<sup>11)</sup> 도사키(戸崎)는 위 단행본(1974)에서 니야야학파의 감각지(感官知; 지각) 발생 과정을 크게 두 갈래로 설명하고 있다.<sup>12)</sup> 첫째, 밧차야나는 『니야야브하샤』(Nyāyabhāṣya, 이하 NBh) 서두에서 인식의 구성요소를 인식주체(pramātr), 인식수단(pramāṇa), 인식대상(prameya), 인식결과(pramiti)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sup>13)</sup> “감관과 대상의 접촉(indriya-artha-sannikarṣa)<sup>14)</sup> → 감각지 → 지각관단(adyavasāya)” 순으로 설명한다. 둘째, 이후 웃도따까라는 『니야야바룻따까』(Nyāyavārttika, 이하 NV)에서 “감관 → 감관과 대상의 접촉 → 인식작용 → 지(知)의 발생” 순으로 설명하고, 또한 인식자나 대상도 지(知)의 원인인데, 왜 인식작용만 원인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제시한다.<sup>15)</sup>

- ① “인식자나 대상은 인식작용이 행해지는 시점에서 그 목적을 이미 이루었다. 그러나 인식작용은 그 시점에서 아직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인식작용이야말로 지(知)의 원인이다(NV 2.26-28).”
- ② “인식작용이 가장 훌륭한 원인이다. 인식자나 대상은 가장 훌륭한 원인이 아니다. 지금 문제시되는 ‘인식수단[量]’은 가장 훌륭한 원인이다. 따라서 인식작용이야말로 원인이다(NV 2.20-23).”

밧차야나와 웃도따까라는 감각지 내지 인식작용의 원인으로서 감관과 대상의 접촉 이외는 열거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것은 감각지에만 있는 특정 원인으로 열거했을

11) NBh 1.1.2: uddiṣṭasyātattva-vyavacchedako dharmo lakṣaṇam. (다르마의 정의란 앞서 언급된 진리가 아닌 것을 배제[차별화]하는 것이다.) 밧차야나는 올바른 정의가 되려면 세 가지 주연 관계의 오류(doṣa)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과잉주연(過剩周延, ativyāpti)의 문제인데, “뿔 달린 것은 소이다.”라고 정의하면, 사슴이나 염소 등에게도 과잉 적용된다. 둘째, 과소주연(過小周延, avyāpti)의 문제인데, “갈색을 띤 것은 소이다.”라고 정의하면, 흑소, 젓소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무주연(無周延, asambhava)의 문제인데, “외발굽을 하고 있는 것(ekaśaphavatva)은 소이다.”라고 정의하면, 쌍발굽을 한 소에게는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 이지수 2003a, 8-9 참조.

12) 戸崎宏正 1974, 164.

13) NBh 1.1.1.

14) ‘sannikarṣa’라는 단어는 sam-mi-√kṛs(당기다, 잡아끌다)의 명사형으로 ‘근접’, ‘연결’, ‘관계’를 뜻하며, 물리적 접촉을 뜻하는 saṃyoga(결합)과 samavāya(내속)을 포함하는 광의로 해석된다. 이지수 2003a, 29 참조.

15) 이하 인용문은 戸崎宏正 1974, 164에서 재인용.

뿐 사실은 그 밖의 자아(=아뜨만)나 영혼(=마나스)과 같은 내적 감각기관의 접촉도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니야야학파는 지각(pratyakṣa, 現量), 추리(anumāna, 比量), 유추(upamāna, 比較量), 성언량(śabda, 聖言量)을 네 가지 인식수단들로 정의한다.<sup>16)</sup> 이에 비해 디그나가는 지각과 추리 이 두 가지만 인식수단으로 인정하고, 성언량과 유추 등은 타자의 배제(anyāpoha)를 통한 추리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별개의 인식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sup>17)</sup>

이제 본격적으로 니야야학파의 지각 이론을 살펴보자. 그들이 말하는 지각 정의는 NS 1.1.4에서 꽤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NS 1.1.4, “지각은 감관과 대상의 [직접] 접촉을 통해서 발생한 인식이므로 (1) 표현 불가능하고 (2) 착오가 없으며 (3) 확정을 그 자성으로 한다.”<sup>18)</sup>

NBh 1.1.4, “말과 대상의 관계에서 대상 인식하는 “이것”이라는 [지시용어] 쓸모없는 것은 [사물에] 명명된 이름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말과 대상의 관계에서 “이것”이라는 말의 명명을 통해 대상 파악한다는 의미이다. 한편 대상이 파악될 때 그 이전의 대상 인식과 차이가 있지 않고, 다만 그러한 대상 인식과 같은 것이 존재할 뿐이다. 그러나 또 다른 대상 인식의 지시용어가 일상 언어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시용어는 대상을 인식할 때 작동하지 않지만, [일상의] 의사소통 시 작동한다. 그러므로 감관과 대상의 접촉에서 발생한 것은 비언어적 대상 인식이라고 한다.”<sup>19)</sup>

이상의 니야야학파의 대표적 지각 정의는 후대의 비판가나 주석가(Vṛttikāra, 'grel

16) NS 1.1.3 (Dvivedin 1986, 29): pratyakṣānumāṇopamānaśabdāḥ pramāṇāni ||

17) PS 5.1: na pramāṇāntaram śabdānumānāt tathāhi tat | kṛtakatvādivat svārtham anyāpohena bhāṣate ||(말은 간접인식[추리]과 별개의 인식수단이 아니다. 즉 그것은 소작성(所作性) 등을 지닌 타자를 배제함으로써 자신의 대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18) NS 1.1.4 (Dvivedin 1986, 32): indriyārthasannikarṣōtpannam jñānam avyapadeśyam avyabhicāri vyavasāyātmakam pratyakṣam || “지각은 감각기관과 대상들의 접촉에서 생기는,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 빗나가지 않는 [그리고] 확정이라는 특성을 지니는 인식이다.” 강성용 2004, 142 참조.

19) NBh 1.1.4: yad idam anupayukte śabdārthasambandhe ṛthajñānam, na tat nāmadheyaśabdena vyapadiśyate, grhīte 'pi ca śabdārthasambandhe 'syārthasyāyamśabdo nāmadheyam iti | yadā tu so ṛtho grhyate, tadā tat pūrvasmādarthajñānān na viśiṣyate, tad arthavijñānam tādr̥g eva bhavati |

pa byed pa)들 사이에서 상당한 논쟁을 촉발시켰다. 특히 밧차야나는 이 NS 1.1.4에 나타난 a-vyapadeśya(표현 불가능한)의 의미를 대상 지시(vyapadeśa)과 대상 인식으로 구별해서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sup>20)</sup> 왜냐하면 사물에 대한 감각지조차도, 말하자면 청색은 청색“이라는(iti)” 말에 의해 구상되기 때문이다. 즉 이것을 통해 우리는 사물의 확정을 가져온다. 그렇지만 청색에 대한 즉각적인 대상 인식(viśaya-jñāna)과 ‘그것은 청색이다’라는 인식(tat-jñāna), 즉 사물의 명명과 구별은 모호할 수밖에 없다.<sup>21)</sup> 따라서 NS의 저자(가우따마)는 이러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각지는 대상에 대한 언어적 구상과 원칙적으로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22)</sup> 가우따마는 감각에 의한 지각(감관지, 感官知)의 정의에 초점을 두었고, 우리에게 지각 상태 혹은 그 상태의 언어 표현을 혼동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우리의 인식 상태는 대개 언어 작용과 결부된 연상 작용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NS에서는 대상을 지시하는 말조차 배우지 않은 어린아이에게도 감각지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sup>23)</sup> 그렇지만 밧차야나는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 대상의 명칭을 관습적으로 창안한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그는 지시대상을 이해하고 지시할 수단을 사용하기 위해 현대의 인용 부호(“ ”)와 비슷한 산스크리트 ‘iti’(~라고)라는 단어의 활용 사례를 제시한다.<sup>24)</sup>

후대의 문법학자 지넨드라뱃디는 PST 49b.8-50a.2 (P. 139, 186)에서 감각지에 의

---

tasya tv arthajñānasyānyaḥ samākhyāśabdo nāstīti, yena pratīyamānaṃ vyavahārāya lakṣeta | na cāpratīyamānena vyavahārah | tasmājñāneṣya saṃjñāśabdeneti karaṇayuktena nirdiśyate ... rūpam iti jñānam, rasa iti vājñānam iti | tad evam arthajñānakāle sa na samākhyāśabdo vyāpriyate, vyavahārakāle tu vyāpriyate | tasmād aśābdam arthajñānam indriyārthasannikarṣṭpannam iti ||

20) Matilal 2005, 3-5.

21) 이 부분은 디그나가가 PS(V) 1.11에서 말한 기억의 이상성(二相性), 즉 자증(自證)과 관련된 내용인데, “청색(과거의 직접경험anubhava) → ‘청색이다’(기억) → ‘청색이다’라는 기억에 대한 기억(상기)”, 다시 말해 “청색 자체 → 청색에 대한 앎 → 청색에 대한 앎에 대한 앎”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의 전제는 기억이 오염되지 않고 선명해야 하며(데벳드라뱃디의 주장), 그럼으로써 자기인식의 동류에 사용된다.

22) Matilal 2005, 3-5.

23) Matilal 2005, 3-5. 미국의 언어학자 노엄 촘스키(Noam Chomsky, 1928-)는 언어를 표층 구조와 심층 구조로 이분화한 것으로 유명하다. 디그나가의 문법적 지식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친 문법학자 바르뜨리하리는 “어떤 단어나 또 다른 것이 없는 개념은 없다.”고 말함으로써 언어가 없는 앎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한다. 이 견해에 비추면, 어린아이가 언어를 배우기 전에 적당한 말을 습득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어린아이가 언어의 ‘심층’구조를 알고 있는 것처럼 선천적 언어 재능이 있고, 반면 이 어린아이가 나중에 배우는 것은 그 언어의 ‘표층’구조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어린아이의 앎이 언어적으로 ‘심층’구조 수준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4) Matilal 2005, 3-5.

한 지각은 표현 불가능하고(avyapadeśya), 착오가 없는 것(avyabhicārin)이라고 정의했다.<sup>25)</sup> 핫토리(服部)에 의하면, 지넨트라붓다는 문법적으로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첫째, 소유복합어로 보면 '표현 불가능한 대상 파악'과 '착오가 없는 대상 파악'으로 이해할 수 있고, 둘째, 격한정복합어로 보면 인식 대상은 표현할 수 없고 착오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6)</sup> 이 경우 'avyapadeśya'와 'avyabhicārin'은 인식의 본성을 의미하고, 소유복합어 'vyavasāyātmaka'의 후접사 -ātmaka는 “~의 본성을 지닌” 혹은 “결과로서 ~을 지닌”을 의미한다.<sup>27)</sup>

니야야학파는 신체의 각 구성 요소인 안이비설신(眼耳鼻舌身=오근)가 각기 상대하는 대상(色聲香味觸=오경)과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작용하는 인식(prāpya-kārin)을 지각이라 단순히 말한다. 반면 비수반두(Vasubandhu, 世親, ca. 320-400)의 『구사론』(Abhidharmakośabhāṣya, 이하 AKBh) 제1장 계품(戒品)에는<sup>28)</sup> 시각[眼]·청각[耳]·마나스[意]가 대상과의 직접적인 접촉 없이 작용(aprāpya-kārin)함으로써 자신보다 큰 대상을 인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감각인 후각[鼻]·미각[舌]·촉각[身]은 자신과 동일한 크기[等量]의 대상과의 직접 접촉이 있어야 인식할 수 있다는 차이를 보인다.<sup>29)</sup> AKBh 10c23-11a10에는 봄(seeing)의 기능이 근견설(根見說)인가 식견설(識見說)인가 하는 논쟁이 보인다. 식견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유리, 운모, 수정을 통해 대상을 볼 수 없다고 말하고,<sup>30)</sup> 근견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벽 뒤에 숨은 대상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지적한다.<sup>31)</sup> 여기서 디그나가는 PS(V) 1.34-44에서 미망사학파의 지각론<sup>32)</sup>을 비판했던 동일한 방식을 사용한다.

25) 지넨트라붓다는 감각과 대상의 접촉을 다섯 가지로 설명한다. ① 결합(samyoga), ② 결합된 내속(samyukta-samavāya), ③ 결합된 내속하는 것에 내속(samyukta-samaveta-samavāya), ④ 내속(samavāya), ⑤ 내속하는 것에 내속(samaveta-samavāya). 니야야학파는 이 다섯 가지에 더해서 ⑥ 한정자-피한정자의 관계(viśeṣaṇa-viśeṣya-bhāva)를 감각-대상의 여섯 가지 관계로 설명한다. 이지수 2003a, 29-35 참조.

26) Hattori 1968, 121: fn. 3.1.

27) Hattori 1968, 121.

28) P. Pradhan본, Patna 1967, 30.

29) 服部正明, 三枝充惠 編 1974, 113. AK 1.44: cakṣuśrotramano 'prāptaviśayam trayam anyathā | tribhir ghrāṇādibhis tulyaviśayagrahaṇam matam ||

30) NS 3.1.44 (Dvididn 1986, 385; 이하 Divividin 1986의 페이지임): aprāpya-grahaṇam kācābhrapaṭalaphaṭikāntarītopalabdheḥ ||

31) NS 3.1.45 (385): kudyāntarītānupalabdherapratīṣedhah ||

32) MS 1.1.4: satsamprayoge puruṣasyendriyāṇām buddhijanna tatpratyaḥṣam | animittaṃ vidyamānōpalambhanatvāt ||(현존 대상(sat)과 인간의 감각 접촉이 있을 때 발생하는 인식, 그것(tat)은 지각이다. [그것은 다르마 인식의] 원인이 아니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것만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박대용 2021, 15에서 인용.



니아야의 논적(論敵)들은 NS 3.1.28-43<sup>33)</sup>에서 말하는 ‘멀리 떨어진 대상 파악(sāntara-grahaṇa)’과 ‘감관의 크기를 초월한 대상 파악(adhika-grahaṇa)’이 문제가 있다고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물론 이 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인물은 디그나가가 아닐 것이다. 그러한 논적들 중 하나로 추정되는 상키야들은 니야야에서 주장하듯이 감각을 물질적인 것(bhautika)으로 보지 않고, 비물질적인 자아의식(ahaṃkāra; 我慢)에서 진화했다고 봄으로써 ‘멀리 떨어진 대상에 도달하는 문제’와 ‘감관보다 크거나 작은 대상을 파악하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었다.’<sup>34)</sup>

이후 웃도따까라는 불교의 비접촉행위(aprāpya-kāritva) 이론에 대한 반박을 다음과 같이 펼쳤다.<sup>35)</sup>

(A) ‘멀리 떨어진 대상 파악(sāntara-grahaṇa)’은 (a) 감관과 비접촉하는 대상을 파악하는 것이라면, 즉 불교도들은 “[宗] 눈은 비접촉 작용을 한다. [因] 왜냐하면 비접촉하는 대상을 파악하기 때문이다.”고 주장할 것이다. (웃도따까라의 반박) 이것은 종이 因을 반복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 동일 반복은 (b) 매개 공간을 통한(sahāntareṇa) 대상 파악이라 할 수 있겠으나, 허공이나 비존재, 특정한 실체를 인식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첫째, 허공은 볼 수 없는 무색이기 때문이고, 둘째, 비존재는 장소에 속한 한정자이므로 장소와 별개인 비존재는 인식할 수 없고,<sup>36)</sup> 셋째, 눈과 대상 사이의 수정 · 운모 · 유리와 같은 실체는 눈이 대상에 도달하는 것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33) NS 3.1.28-43 (373-384): pārthivaṃ guṇāntaropalabdheḥ || 28 || śrutiprāmāṇyāc ca || 29|| || kṛṣṇasāre(눈의 동공에서) satyupalambhād vyatiricya copalambhāt saṃśayaḥ || 30 || mahad-anu-grahaṇāt || 31 || raśmyarthasannikarṣaviśeṣāt tadgrahaṇam || 32 || tadanupalabdher ahetuḥ || 33 || nānumīyamānasya pratyakṣato 'nupalabdhir abhāvahetuḥ || 34 || dravyaguṇadharmabhedāc copalabdhinīyamaḥ || 35 || anekadravyasamavāyād rūpaviśeṣāc ca rūpopalabdhiḥ || 36 || karmakāritatāscendriyāṇām vyūhaḥ puruṣārthatantraḥ || 37|| avyabhicārāc ca pratīghāto bhautikadharmāḥ || 38 || madhyandinolkāprakāśānupalabdhivat tadanupalabdhiḥ || 39 || na rātrāv apy anupalabdheḥ || 40 || bāhyaparakāśānugrahād viśayopalabdher anabhivyaktito 'nupalabdhiḥ || 41 || abhivyaktau cābhibhavāt || 42 || naktañcaranayanaraśmidarśanāc ca || 43 ||

34) 服部正明 1974, 114.

35) NV 33.16-17: aprāpyakāriṇī cakṣuḥśrotre ity eke. tatra ca nyāyam bruvate-aprāpyakāri cakṣuḥ, sāntaragrahaṇāt prthutaragrahaṇāc ceti. 이하 인용문은 Hattori 1968, 126: fn.3.22에서 재인용.

36) 이 비존재(abhāva)에 대한 비인식의 문제는 뒤 계승 20에서 다룰 것이다. 한편, 서구의 현상학자 레비나스(E. Levinas, 1906-1995)는 그의 저서 *De l'existence à l'existant*(1963) 서두에서 “존재하는 것(ce qui existe)과 그 존재(existence) 자체의 구별, 즉 명사를 통해 지칭되는 개별자, 보편, 집단, 신 등과 그 존재 사건이나 존재 활동의 구별은 철학적 성찰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에마뉘엘 레비나스, 서동욱 역 2016, 19 참조.

(B) '감관의 크기를 초월한 대상 파악(adhika-grahana)'은 눈과 대상의 접촉만으로 가능하다. 니야야학파에 따르면, 눈과 대상의 접촉은 결합의 속성이고, 그 작용은 대상 일부에만 있지 전체에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비접촉행위에 대한 이유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NV 34.9-35.10).

### III. 디그나가의 니야야학과 지각론 비판 전개

디그나가는 앞서 『논궤』의 지각 정의를 비판한 후, 곧바로 PSV ad PS 1.17에서 NS 1.1.4계송의 avyapadeśya 등의 한정사들이 타당하지 않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니야야학파의 지각 정의에 대한 비판을 시작한다.<sup>37)</sup>

계송 17ab, “감관과 대상의 [접촉으로 인한 지(知)개] 발생할 때, [거기에는] 표현 가능한 등의 [한정사개] 결합하는 일을 있을 수 없다.”<sup>38)</sup>

디그나가는 모든 사물을 개별상과 보편상으로 나누고 지각과 추리의 대상으로 각기 상정한다. 개별상은 언어 표현 불가능한 것인 반면(avyapadeśya, anirdeśya), 보편상은 언어와 불가분의 관계인 개념적 구상(kapanā; 분별)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언어 표현이 완전히 배제된 감관지는 착오로부터의 일탈 가능성이 없다.<sup>39)</sup> 따라서 이 ‘표현 불가능한’ 등의 한정사는 불필요하다는 것이 위 계송에서 말하는 디그나가의 입장이다.<sup>40)</sup> 그렇다면 착오지(錯誤知)는 ‘마음에 의한 착란(manobhrānti)’을 그 대상으로 하고

37) PSV 1.17ab<sub>1</sub>: (Steinkellner 2005, 7:6-8; 이하 Steinkellner 2005의 페이지임): naiyāyikānām tv indriyārthasannikarṣotpannamv jñānam avyapadeśyam avyabhicāri vyavasāyātmakam pratyakṣam (NS 1.1.4) iti. atrāpi viśeṣaṇāny ayuktāni, yasmāt.

38) PS 1.17ab: **indriyārthodbhave nāsti vyapadeśyādisambhavaḥ |**

39) 이 부분은 후대의 다르마끼르띠와 미묘한 입장차가 보인다. 둘 다 지각은 분별을 배제하는 것(現量諸分別)이라고 했지만, 디그나가는 PS(V) 1.7에서 신기루를 물로 보는 착오의 사례를 유사지각(pratyakṣa-ābha)으로 보고, 반면 다르마끼르띠는 “지각은 분별을 배제하는 것이고, 착오가 전혀 없는 것이라고 부인한다. 사실, 착오는 유사지각으로써 마나스에 의해 일어나는 개념적 지각인데, 이전 경량부에서도 ‘현색, 즉 언어적 가탁(假託)’의 산물로 봤다.

40) PSV 1.17ab<sub>2</sub> (7:10-12): viśeṣaṇam hi vyabhicārasambhava kriyate. na cāstīndriyabuddher vyapadeśyaviśayatvam, anumānaviśayatvād vyapadeśyasya, anirdeśyatve cāvvyabhicārah, na hīn-driyabuddhiḥ sarvā nirdeṣṭuṃ śakyate. tasmād viśeṣaṇavacanam naiva kartavyam.

있으므로 감각지 안에 착오 대상이 있을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됨을 알 수 있다(Skt. *avyabhicārin*, Tib. *mi 'khrul ba'i yul nyid*).<sup>41)</sup>

실제, 확정(*vyavasāya*)은 결정(*niścaya*)을 의미함으로<sup>42)</sup> ‘소(Skt. *go*, Tib. *ba lang*)’와 같은 개념들은 보편을 한정하는 개념적 이해 없이는 경험할 수 없다.<sup>43)</sup> 디그나가 는 명칭, 종(= 보편) 등이 비매개적 감각 자료와 결합하는 순간, 개념적 구상(*kalpanā*)이 발생한다고 본다.<sup>44)</sup> 따라서 감각지는 일체의 개념적 구상, 즉 분별을 배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니야야들이 결정을 확정 개념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구태여 *vyavasāyātmaka*(확정의 본성을 가진 것)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한다.<sup>45)</sup> 앞서의 지넨드라붓디의 해석을 빌리자면, *vyavasāyātmaka*의 접미사 ‘*ātmaka*’를 “원인으로써 본성을 가진 것”보다는 “*zhen pa'i 'bras bu can*”(확정의 결과를 가진 것)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sup>46)</sup>

한편, 디그나가는 a-*vyapadeśya* 단어가 일탈을 제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감각지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한다. 그는 이 단어가 감각과 대상의 접촉에서 일어난 인식이 지각이라는 정의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고 반문한다. 그는 인식의 본성을 표현하기 위해 자상의 실체를 구성하는 능력(*dra-vyānārambhaka*)이나 무작용으로(*niškriya*) 허공(*ākāśa*) 등을 다루지 않지만, 일종의 속성으로 표현되는 과잉 오류(*atiprasaṅga*)의 문제라고 지적한다.<sup>47)</sup> 예를 들면, “도처에서 색과 소리의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것은 지각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sup>48)</sup>

41) PSV 1.17ab<sub>3</sub> (7:13): *na ca vyabhicāriṣayātve, manobhrāntiṣayātvād vyabhicāriṇaḥ.*

42) 박기열(2016)은 지각의 대상확정(*arthaniścaya*)과 관련해 PS 1.9b 또는 PV 2.339를 유식학파의 입장에서 서술하고 핫토리설명을 제시한다. 이 계층에서 결정(*niścaya*)은 분별지의 판단을 의미하는 ‘*ady-avasāya*(지각판단)’가 아니라 확정/결정을 의미하는 ‘*vyavasthāpana*’라는 것이며, 따라서 전자를 무분별지(=지각)의 대상확정으로 후자를 분별지의 대상확정으로 소개하고 있다. 박기열 2016, 99-100 참조.

43) PSV 1.17ab<sub>4</sub> (7:14-15): *vyavasāyo 'pi hi niścayaḥ. sa sāmānya, ādivad gavādi no vikalpya adarśanāna sambhavati.*

44) PSV 1.17ab<sub>5</sub> (7:16-17): *athāyathārthādijñānanivṛttaya ucyaṭe, tathāpy ayuktaṃ viśeṣaṇam. avyabhicārāc ca. sarvā hīndriyabuddhiḥ svārthamātragrāhiṇī.*

45) PSV 1.17ab<sub>6</sub> (7:18-19): *etena uktavikalpo 'pi pratyuktaḥ, yad uktaṃ vyavasāyātmakam iti vyavasāyakāryam ii. na hy asti sāksād ayathārthādijñānakāryam indriyabuddhau.*

46) PST 52a.8 (P. 139, 187:1).

47) PSV 1.17ab<sub>7</sub> (7:20-23): *athāpy avyapadeśyādigrahaṇam tasya jñānasya svabhāvapradarśanāya, tan na, pratyakṣalakṣaṇa vācyatvāt tasya cendriyārthasannikarṣeṇa eva siddhatvāt. jñānasvabhāvanirdeśyatve ca guṇatvadravyānārambhakatvaniškriyatvākāśādyaviśayatvasyāpi nirdeśyatvād atiprasaṅgaḥ.*

48) PSV 1.17ab<sub>8</sub> (7:24): *sarvatra ca sannikarṣoṭpannam pratyakṣam iṣṭau rūpaśabdayoḥ.*

계송 17cd, “멀리 떨어진 대상과 감각의 크기를 초월한 대상은 파악할 수 없을 것이다.”<sup>49)</sup>

실제 후각의 사례에서 우리는 감각과 대상이 멀리 떨어져 있거나, 혹은 감각의 크기를 초월한 경우에 그 대상을 파악할 수 없음을 경험한다.<sup>50)</sup> 니야야들은 감각과 외계 대상의 접촉에서 발생한 단순한 인식을 지각으로 보는데, 두 개의 감각들(즉 눈과 귀)의 작용이 그 물적 토대(adhiṣṭhāna)를 외부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감각들 또한 멀리 떨어져 있거나 감각의 크기를 초월한 대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또한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데, 왜 그러한 것인가?<sup>51)</sup> NS 3.1.30-32에서 보면, 시각은 눈의 동공(kṛṣṇasāra/golaka)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서 발산하는 광선(rāsmi)이 대상에 도달해 생기는 것이고, 반대로 청각은 대상에서 송신된 소리의 파동이 귀에 수신되어 인식된다고 하기 때문이다.<sup>52)</sup> 이러한 청각 원리(과정)와 정반대로, 상키야와 베단따는 청각이 소리가 발생하는 대상에 도달하여 수신한다고 주장한다.<sup>53)</sup> 여하튼 이러한 ‘감관도달설(prāpyavāda)’<sup>54)</sup>로 인해 감각보다 크든지 작든지, 혹은 멀리 떨어져 있든지 상관없이 감각이 목표하는 대상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맞서 디그나가는 다음 계송에서 반론을 펼친다.

계송 18, “눈의 물적 토대는 외부에 있지 않다. [그렇지 않다면] 눈은 대상을 볼 수도 [내적 영역인] 즐거움 등도 인식할 수 없으며,<sup>55)</sup> 혹은(vā) 다른 감각인 마나스가 반

49) PS 1.17cd: **sāntaragrahaṇam na syāt prāptau jñāne 'dhikasya ca** ||

50) PSV 1.17ab<sup>9</sup> (7:26-27): na hīndriyanirantare gandhādau **sāntaragrahaṇam** dr̥ṣtam, nāpy **adhikagrahaṇam** iti; NVTṬ118.2: sāntaragrahaṇam na syāt prāptau jñāne 'dhikasya ca.

51) PSV 1.18a<sub>1</sub> (8:1-2): bahivṛttivād upapannam *eva*. bahir *hy* adhiṣṭhānād vṛttir indriyadvayasya. ata upapannam tadviśayasya sāntarādhikagrahaṇam *api* ity cet, tad *apy* ayuktam, yasmāt <**adhiṣṭhānād bahir nākṣam**>; ŚV 4.44-45: tayas ca prāpyakāritvam indriyatvāt tvagādivat | kecit tayoh śārīrāc ca bahir vṛttim pracakṣate || 44 || cikitsādiprayogaś ca yo 'dhiṣṭhāne prayujyate | so 'pi tasyaiva saṃskāra ādheyasyopakāraḥ || 45 || (피부[촉각]처럼 두 가지[눈과 귀] 감각도달 또한 후자는 두 가지 신체로부터 외부대상에 작용하는 것이라고 일컫는다. 의료처방 등이 적용되는 [감관] 토대를 사용하는 것조차 이러한 형성 작용과 같은 속성의 보조자일 뿐이다.)

52) 위 각주 33)에서 소개한 수뜨라를 참조.

53) Hattori 1968, 127: fn.3, 25.

54) ‘감관도달설’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강형철 2013을 참조.

55) 니야야학파는 아뜨만의 속성인 즐거움, 괴로움, 원함, 혐오, 의욕, 앓은 마나스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다. NVTṬ 146.14: na sukhādi prameyam vā mano vāstīndriyāntaram.

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sup>56)</sup>

위 계층에 따르면, 감각은 물적 토대를 제공하는 장소이고, 거기서 의료처방(cikitsā) 등이 적용되듯이 대상과 분리되어 파악하는 것은 물적 토대에 함께 하는 감각 자체에 의한 것이지 멀리 떨어진 대상을 파악하는 외적 감각 기능의 몫이 아니라고 말한다.<sup>57)</sup> 그리해서 시각과 청각이 대상과 직접적인 접촉 없이 거리가 떨어져 있거나 더 큰 대상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sup>58)</sup>

디그나가는 계층 18c의 주석에서 “감관을 다섯 가지로 한정한다면 즐거움 등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할 것이고, 혹은(vā) …”<sup>59)</sup>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혹은’이라는 표현은 니야야에서 인정하는 감각 외 별도의 감각이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 말해 내적 영역에 속하는 즐거움(sukha), 괴로움(duḥkha), 원함(icchā), 혐오(dveṣa), 의욕(prayatna)을 파악하는 지(知, dhi)가 추리 증상(liṅga)이 없다는 것은 인식수단이 아니므로[非量] 즐거움 등의 대상을 파악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혹은’이라는 말은 앞서 네 가지 인식수단 외에 추가적으로 열거하는 ‘마나스’라는 감각(즉 意根)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sup>60)</sup>

56) PS 1.18: **adhiṣṭhānād bahir nākṣam na śaktir viṣayekṣaṇe |**

**na sukhādi prameyaṃ vā mano vāstv indriyāntaram ||**

57) PSV 1.18a<sub>2</sub> (8:4-5): *siddham iti vākyaśeṣaḥ*, adhiṣṭhānadeśa evendriyam, tatra cikitsādiprayogāt, ata indriyād eva vicchinne ṛthe *grahaṇam*.

58) PSV 1.18b (8:8-9): < **na śaktir viṣayekṣaṇe |** > anyathādhiṣṭhānapidhāne ṽi viṣayagrahaṇam *syāt. tataścakṣuḥśrotrayor adhiṣṭhānāntaḥsthitayor evāsannikṛṣya viṣayekṣaṇāt sāntarādhikagrahaṇam yuktam*.

59) PSV 1.18c (8:10-11): pañcānām cendriyatve < **na sukhādi prameyaṃvā** >; NS 1.1.12, “ghrāṇarasanacakṣustvakśrotrānīndriyāṇi bhūtebhyah ||(모든 감각은 후각 · 미각 · 시각 · 촉각 · 청각으로 구성되어 있다.)

60) PSV 1.18d (8:12-14): *vetigrahaṇam vāśabdāt pramāṇāntaropādānam. yad dhi liṅgādyabhāve vasukhaduḥkhecchādveṣaprayatneṣu grahaṇam, tad apramāṇam iti sukhādīnām prameyatā na syāt, tasya vā pramāṇasya pramāṇāntaratvam upasaṅkhyeyam*; NS 1.1.9 (Dvivedin 1986, 64): ātmaśārīrendriyārthabuddhimanahṽrtidoṣa pretyabhāvaphaladuḥkhāpavargāsatu prameyam ||(인식대상에는 자아, 신체, 감각, 감각대상, 인식, 의식, 행위, 결합, 재생, 파보, 고(苦), 고로부터 해탈이 있다.) 이후 밧차야나는 마나스(意)가 즐거움 등의 내적 영역에 적용될 수 있는 감각의 한 종류임을 명시하였다. 다시 말해, 물질적인 다섯 감각기관은 해당 대상(niyata-viṣaya)에 특정한 속성이 부여될 때만 자신의 기능이 작동되지만, 비물질적인 마나스는 속성이 부여되지 않더라도 모든 대상(sarva-viṣaya)을 상대하는 감각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한다. Hattori 1968, 128: fn.3.33 참조.

계송 19, “만약 [마나스가 감관이라는 주장이 니야야 경전에] 부정되어 있지 않아 [마나스가 감관이라고 인정된다면, 다른 감관들에 대해 이야기해봐야 쓸모없는 일이 될 것이다.<sup>61)</sup> 대상 확정에 있어서 [인식수단과 별개의] 인식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데, [인식수단에 의해 파악되는] 한정자는 [인식결과로 나타나는 피한정자와] 구별되기 때문이다.”<sup>62)</sup>

디그나가는 “만약 타 학파의 학설이 자파(自派)에서 부정되지 않으면 쉽게 수용된다. 즉 자파의 수뜨라에서 마나스가 감관이라는 이론에 대한 부정이 발견되지 않을 때, 그것은 정말로 수용된다.”는 니야야의 주장을 인용한다.<sup>63)</sup> 하지만 그는 이러한 주장 자체가 타 학파의 이론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비판한다.<sup>64)</sup> 쉽게 말해, 이전의 니야야 수뜨라에서 마나스가 감관으로 부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근거로 니야야학파에서 마나스를 감관이라고 말한다면, 냄새(ghāṇa) 등의 감각기관을 구태여 설명하는 일은 쓸모없는(vrthā)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주장은 [궁정적 설명이 아닌] 부정을 통해서만 성립하고 있기 때문이다.<sup>65)</sup>

디그나가는 옳 자체가 인식수단일 때 인식수단과 인식결과는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들(ārthāntaraphalavādin), 즉 밧차야나와 같은 니야야 논사들은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주장하는 “결정을 본성으로 갖는 옳”은 인식수단인데, 그 인식수단이 작동할 때 대상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인식수단 자신과 동일

61) NVTṬ 147.23: anīṣedhād upāttaṃ ced anyendriyarutaṃ vṛthā; NV 39.8-11: apratiṣedhād upāttaṃ itī na, śeṣābhīdhānavaiyarthīyāt. śeṣāny apīndriyāni tai' pariṣaṅghitāni tasmāt tāny api na vaktavyāni yady apratiṣedhād upādānaṃ syād itī.

62) PS 1.19: **anīṣedhād upāttaṃ ced anyendriyarutaṃ vṛthā |**  
**nīścite 'rthe phalābhāvo bhinnatvān na viśeṣaṇe ||**

63) PSV 1.19a<sub>1</sub> (8:16-17): *athavā manasa evendriyatvaṃ vācyaṃ tatsannikarṣotpannasya pratyakṣatvasiddhyartham*; NBh 1.1.4: *tantrāntarasamācārāccaitatpratyetyavyamiti | paramatramapratīṣiddhamanumatamiti hi tantrayuktiḥ.*

64) PSV 1.19a<sub>2</sub> (8:16-17): *athāpi paramatasyāpratiṣiddhasya siddhau manasa indriyatvaṃ anīṣedhād upāttaṃ eva. asti hy ekeṣāṃ mate manasa indriyabhāvāyattiḥ. tathā.*

65) PSV 1.19a<sub>3</sub> (8:22-23): *yadi pareṇa paṅghitasya manaso 'pratiṣedhād indriyatvaṃ, tato ghrāṇādīni indriyāny ucyanta itī nirdeśo vṛthā syāt, apratiṣedhād eva siddhatvāt.* 웃도따까라는 NV 39.11-15에서 이러한 디그나가의 비판을 비유나 논리적 기법을 사용한 문장 표현(tantrayukti)을 잘못 해석한 데서 비롯을 두고 있으며, 자신의 이론(svamata)이 또 다른 문헌에 인용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간략하게 소개하지 않아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타자의 이론(paramata)과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Hattori 1968, 128-129: fn.3.36 참조.

한 인식결과가 된다는 것이다.<sup>66)</sup> 하지만 그는 “한정자의 앎은 인식수단이다(*viśeṣaṇa-jñānaṃ pramāṇam*).”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보편 등의 피한정자의 앎을 인식수단으로 간주하는 동시에 실제 등의 피한정자의 앎 또한 인식결과로 인정한다면, 그것은 가능하다고 동조한다.<sup>67)</sup>

1. 주장(宗) : 한정자와 피한정자는 각기 구별된다.
2. 이유(因) : 왜냐하면 인식수단이 그 대상과 다른 인식결과에 대하여 하나의 것을 취해야 함은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3. 유례(喻) : 마치 어떤 이가 베는 목표가 카디라 나무여서 도끼(*Tib. bśaga pa*)를 가지고 빨라사나무를 자르는 일(*chidā*)을 결코 볼 수 없는 것과 같다.<sup>68)</sup>

니야야 논사들은 한정자의 앎이 피한정자의 앎의 원인이어서 피한정자도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취하는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디그나가는 모든 행위 요소(*kāraka*)가 인식수단으로 인정되어 차이가 있는 과잉 오류를 지적한다.<sup>69)</sup> 이와 같이 모든 행위 요소인 인식주체(주격), 인식대상(목적격), 인식장소(처격)는 한정자의 앎처럼 피한정자의 앎의 원인이 되는 동시에, 피한정자의 인식결과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디그나가는 인식수단-결과의 비별체설을 주장하고, 앎[知] 자신은 인식행위로 간주될 때 인식수단이며 동일한 앎이 대상의 인식으로 간주될 때는 인식수단-결과가 된다고

66) PSV 1.19c (8:26-27): *niścayātmakam hi jñānaṃ pramāṇam. tatpramāṇotpattāv arthādhigamāt phalābhāvaḥ syāt.* cf. NS 1.1.3: *vṛttis tu sannikarṣo jñānaṃ vā. yadā sannikarṣas tadā jñānaṃ pramitiḥ, yadā jñānaṃ tadā hānōpādānōpekṣābuddhayaḥ phalam.*

67) PSV 1.19d<sub>1</sub> (9:1-2): *viśeṣaṇajñānaṃ pramāṇam. yat sāmānyādiviśeṣaṇajñānam, tat pramāṇam, yac ca dravyādiviśeṣyajñānam, tat phalam iti cet, tat.* 바짜스빠띠미슈리는 NVTI 125.3-12에서 지각을 무분별현량(無分別現量)과 유분별현량(有分別現量)으로 나누고, 전자를 피한정자와 상관없는 대상 파악으로, 후자를 한정자-피한정자 관계(*viśeṣaṇa-viśeṣya-bhāva*)에서의 대상 파악으로 이해한다. Hattori 1968, 129: fn.3.41 참조

68) PSV 1.19d<sub>2</sub> (9:4-5): ***bhinnam viśeṣaṇamviśeṣyād bhinnam.*** *na hy anyaviśayasya pramāṇasyānyatra phalam yuktam. yathā khadiraviśayam chindatā cchedanena na palāśacchidā dṛṣṭā.* 미망사학파의 꾸마릴라(*Kumārila*)는 ŚV 4.74-75에서 디그나가의 인식수단-결과의 비별체설에 대한 반론으로 동품의 사례를 치환하여 인용한다. 그렇지만 이것은, 나무를 베는 것은 베는 도끼를 수단(*kaṛaṇa*, 도구인)으로 하고, 이는 빨라사(*palāśa*) 나무를 베는 것이 카디라(*khadira*) 나무를 베는 데 사용했던 도끼로부터의 결과가 된다는 모호한 결론에 도달한다. cf. PV 3.314ab: *neṣṭo viśayabhedho 'pi kriyāsāadhanayor dvayoh |* "(행위와 능성자 이 둘이 각기 대상을 따로 갖는다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69) PSV 1.20a<sub>1</sub> (9:6): *viśeṣyajñānahetutvāt tadviśayatvam apy astīti cet, na, atiprasaṅgāt.*

말한다.<sup>70)</sup> 더욱이 니야야 논사들이 말하는, 한정자와 피한정자는 인식수단과 인식결과에 의해 각기 파악된다는 가설은 다음의 PS 1.20계송에서 제시하는 딜레마에 빠진다.

계송 20, “십지어 [한정자의 앎이 현현하는 경우에도 인식결과] 존재하지 않을지 [모른다]. 만약 그것[한정자의 앎]이 두 개라고 [니야야들이] 말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 왜냐하면 피한정자[의 앎]가 또한 [두 가지]라는 것을 따르게 되기 때문이다. 무지(無知) 등이 도처에서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것들의] 소멸(nivṛtti)이 인식 결과가 될 수 없는데 비존재이기 때문이다.”<sup>71)</sup>

한정자(viśeṣaṇa)가 파악되더라도 인식결과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가령 우리는 황혼녘에 소(go, cow)를 바라보면 그 소의 보편의 한정자인 소성(gotva, cowness)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그 소가 뿔을 지니고 있는지(śṅgitva), 갈색을 띠고 있는지(kapilatva), 아니면 목젓이 있는지(sāsnāmat) 등을 파악한다.<sup>72)</sup> 그럼에도 우리는 그 소라는 개별자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소의 인식결과를 획득할 수 없다. 디그나가는 인식결과가 있지 않는 한, 인식수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한정자의 앎이 인식수단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니야야 논사들은 “한정자의 앎 자체가 인식수단과 인식대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갖는데, [마치 요가 수행자들처럼] 자기인식(=자증)하는 경우 인식대상이자 인식주체(=감수자)가 된다.”고 주장한다.<sup>73)</sup> 그러나 이 표현은 피한정자의 앎마저 인식수단과 인식대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지니게 될 것이다. 따라서 디그나가는 니야야 논사들이 말하는 피한정자의 앎이 자증(自證, svasaṃvedana, svasaṃvitti)처럼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한다.<sup>74)</sup>

70) PSV 1.20a<sub>2</sub> (9:6-8): *evaṃ hi sarvakāraṅgasaṅkaraḥ syāt, viśeṣyajñānahetutvena tatkaranaṭvāt, tasmāt yasya karmaṇi vyāpāraḥyātiḥ, tasyaiva tatphalatvaṃ yuktaṃ.*

71) PS 1.20: **na tatra ca dvayaṃ tac cen na viśeṣye 'pi vartate |**  
**ajñānādi na sarvatra nivṛttir nāsati phalam ||**

72) 니야야학파는 소라는 전체(avayavin)가 그 한정자인 속성에 해당하는 부분(avayava), 예로 목젓, 뿔 등과 별개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전체-부분 논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Matilal 1986, 266-275 참조.

73) PSV 1.20a<sub>3</sub> (9:13-14): *athāpi tad eva viśeṣaṇajñānam pramāṇam prameyaṃ ca dvayaṃ api bhavet. tad yathā svātmādhigamamātre prameyaṃ ca bhavati grahītāca.* 니야야들은 범부가 아닌, 명상이나 요가 수행자만이 아뜨만과 마나스의 특별한 접촉(결합)을 통해 자신의 아뜨만을 인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NBh 1.1.3).

74) PSV 1.20b (9:16-18): *evaṃ hi viśeṣyajñāne 'pi pramāṇam prameyaṃ cobhayaṃ prāpnoti, yady*



한편, 니야야학파는 “그러한 경우에 또 다른 방법으로 인식수단-결과의 별체설을 입증할 수 있다. 즉 대상이 인식될 때 무지(ajñāna), 의심(saṃśaya), 오류지(誤謬知, viparyayajñāna)의 소멸(nivṛtti)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램프 불빛이 어둠을 소멸하는 결과를 낳는 것과 같다. 소멸은 인식수단과 구별되는 인식결과이다.”<sup>75)</sup>라고 주장한다. 이에 디그나가는 도처에서 무지(無知) 등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한다.

디그나가는 대상 인식의 앎이 일부 경우에 단지 의지만(ābhogamātra)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무지 등이 확실히 현현하는 것은 도처에서가 아니라고 말한다.<sup>76)</sup> 설령 우리가 무지 등과 같은 존재를 인정하더라도 그 소멸을 인식결과라고 인정할 수 없는데, 그것은 일종의 비존재(abhāva)<sup>77)</sup>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78)</sup>

거듭 말하자면, 무지 등의 소멸은 무지 등의 비존재를 의미하고, 그것은 인식될 수 없기 때문에 비존재가 인식결과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sup>79)</sup>

## IV. 나오는 말

이상에서 디그나가의 『쁘라마나삼웃짜야(브릿띠)』 제1 <현량장> 17-20계송과 자주에 나타난 니야야학파의 지각 이론에 대한 비판을 복원된 범본 텍스트의 구절을 따라서 살펴보았다.

II장은 니야야학파의 대표적 지각 정의인 NS 1.1.4, “*indriyārthasannikarṣōtpannam jñānam avyapadeśyam avyabhicāri vyavasāyātmakam pratyakṣam* || (지각은 감각관 대상의 직접 접촉을 통해 발생한 인식이어서 (1) 표현 불가능하고 (2) 착오가 없으며

*arthāntare 'pi jñānajñeyayoḥ pramāṇam prameyam ca syāt. svādhigame tu jñānasya ātmavat tasyaiva ubhayabhāvaḥ. viśeṣaṇajñānam ātmanā samānam ity ubhayaṃna yujyate.*

75) PSV 1.20c (9:19-20): *evaṃ tarhi prameyādhigame yā ajñānasamśayaviparyayajñānanivṛtīḥ, sā phalam bhaviṣyati. tad apy ayuktam.*

76) PSV 1.20d; (9:22): *sarvatra tāvad ajñānāder bhāvaniyamo nāsti, kvacid ābhogamātreṇa jñānotpatteḥ. bhavatu nāmājñānādīḥ, tathāpi.*

77) 니야야학파에서는 비존재(abhāva)를 7범주의 하나로 인정하고, “여기에 물단지가 없다(iha ghaṭo nāsti).”는 비인식의 사례를 제시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지수 2003b, 19-24 참조.

78) PSV 1.20d<sub>2</sub> (9:25-26): *nivṛttir ity ajñānādyabhāve kriyate, sāsati na phalam, tasyāḥ prameyabhavāyuktatvāt.*

79) PSV 1.20d<sub>3</sub> (9:27): *evaṃ tāvan nāiyāyikānām pratyakṣam ayuktam.*

(3) 결정을 [그 본성으로 한다.]의 문장 구조를 살펴보았다. 이 문장 분석을 통해 우리는 NS의 저자인 가우따마가 우리에게 감각지(感官知)와 개념지(概念知)를 혼동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대개 언어와 결부된 연상 메커니즘을 통해 의해 현현하는 대상에 대한 이해를 갖지만,<sup>80)</sup> 지각 작용인 감각지는 언어적 구상과 전혀 관계가 없는 언어 이전의 대상 이해이다. 현상학 용어를 빌리자면, 전(前)반성적 작용이다. 아마도 저자는 이 점을 명확히 하려고 avyapadeśya 등의 한정사들을 구태여 추가했던 것으로 보인다.

Ⅲ장에서는 디그나가의 니야야 지각론 비판을 전반적으로 조망하기 위해서 PSV ad PS 1.17-20 구문을 축자적(逐字的)으로 검토했다. 여기서 그는 지각을 “감관과 대상의 직접 접촉(indriyārtha-sannikarṣa)”이라고 단순히 정의한 니야야학과에 맞서 그들의 논리가 지닌 모순점을 예리하게 파고들었다. 이 내용은 바로 이어지는 PS(V) 1.21-24에서 디그나가가 바이쉐시카학파의 지각론(VS 3.1.15, “ātmendriyamanortha-sannikarṣād yan niṣpadyate tad anyat”), 즉 속성 등의 인식이 감관을 토대로 하거나 마나스의 접촉 등을 통한 “네 가지 요소 등(catuṣṭayādi)의 접촉”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오류(doṣa)를 비판하는 순차적 근거가 된다.<sup>81)</sup> 이것은 필자가 서두에서 화두를 던졌던, 디그나가가 타 학파 비판 가운데 니야야학파의 지각론을 왜 맨 처음 공격했는지 알려주는 결정적인 실마리가 된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고전인도 철학사에서 큰 획을 그었던 불교인식논리학의 창시자인 디그나가의 고유한 견해(darśana)와 철학(ānvīkṣikī)을 귀류적인 방법으로 살펴보는 연구의 일환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디그나가 이후의 전지적 관점의 과잉 해석을 가급적 배제하거나 혹은 [다르마끼르따나 지넨드라붓디로] 최소화했다. 이에 필자는 2005년 새롭게 복원된 디그나가의 산스끄리트본 『빠라마니삼웃짜야(브릿떼)』를 중심으로 니야야학과 지각론 비판 내용 검토를 모두 마쳤다.

결론적으로, 이상의 PSV ad PS 1.17-20의 니야야학과 지각론 비판은 다음에 이어질 바이쉐시카학파의 지각론 비판을 위해 잘 짜여진 연결고리(gap-bridger)임을 알 수 있었다.

80) PVin 1.4: abhilāpasamsargayogya-pratibhāsā pratītiḥ.

81) 박대용 2020, 100-101.

약호

- AKBh : *Abhidharmakośabhāṣyam* of Vasubandhu, ed. Prahlad Pradhan, Patna: Kashi Prasad Jayaswal Research Institute (Tibetan Sanskrit Works Series 8), 1967, 1975.
- NBh : *Nyāyabhasya* of Vātsyāyana, Ed. G. Jha, Poona Oriental Series 58, Poona, 1939.  
[http://gretil.sub.uni-goettingen.de/gretil/1\\_sanskr/6\\_sastra/3\\_phil/nyaya/nysvbhu.htm](http://gretil.sub.uni-goettingen.de/gretil/1_sanskr/6_sastra/3_phil/nyaya/nysvbhu.htm)
- NS : *Nyāyasūtra* of Gautama, Ed. Vindhyaśvarī Prasād Dvivedin, *Nyāyavarttikam* : *A gloss on Vātsyāyana's commentary of the Nyāya-Aphorisms*, Delhi: Eastern Book Linkers, 1986.
- NV : *Nyāyavārttika* of Bhāradvāja Uddyotakara, Ed. Anantalal Thakur, New Delhi: Indian Council of Philosophical Research, 1997.
- NVTI : *Nyāyavārttikatātparyāṭikā* of Vācaspati Mīśra, Kashi Sanskrit Series 24, Benares, 1925. *Nyāyakaṇikā* of Vācaspati Mīśra, as published with Vidhiviveka of Mandanamīśra in the *Pandit*, new series, 25-28, Benares, 1904-1906.
- PS(V) 1 : *Dignāga's Pramāṇasamuccaya(vṛtti)*, Chapter 1, P. 5072, Ce 93b4-109a1.  
티벳역 교정본 Hattori 1968: 174-237.  
산스크리트 복원본 Ernst Steinkellner 2005, Published online  
[http://ikga.oeaw.ac.at/Mat/dignaga\\_PS\\_1.pdf](http://ikga.oeaw.ac.at/Mat/dignaga_PS_1.pdf).
- PS(V) 5 : *Dignāga's Pramāṇasamuccaya(vṛtti)*, Chapter 5, P. 5072, Ce 156a4-169b6.  
산스크리트 복원본 Pind 2015: I.1\*-63\*.
- PST : *Viśālāmalavatī Pramāṇasamuccayaṭikā* of Jinendrabuddhi, D. 4268; P. 5766
- PSTB : *Jinendrabuddhi's Viśālāmalavatī Pramāṇasamuccayaṭikā, chapter 1. Part I : Critical edition; Part II : Diplomatic edition with a manuscript description* ed. by Anne MacDonald, Ernst Steinkellner *et al.*, 2005, Beijing and Vienna: China Tibetology Publishing House and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Press.
- ŚV : *Ślokavārttika* of Kumārila Bhaṭṭa, as published together with ŚVV, ŚVK, and NR.
- ŚV<sub>K</sub> : Kataoka 2011, vol. 1.
- VS(V) : *Vaiśeṣikasūtra* of Kaṇāda, ed. together with Candrānanda's *Vṛtti*, ed. by Harunaga

Isaacson, In *Materials for the Study of the Vaiśeṣika system*. Ph.D. Thesis, University of Leiden, 1995.

## 1차 자료

『阿毘達磨俱舍論』(T. 29)

## 2차 자료

- 마티랄, B. K., 박태섭 역. 1993. 『고전인도 논리학』(*Matilal, Bimal Krishna. 1971. Epistemology, Logic, and Grammar in Indian Philosophical Analysis*. The Hague: Mouton). 서울: 고려원.
- 사이구사 미쓰요시(三枝充恵) 편, 심봉섭 역. 1995. 『인식론·논리학』. 서울: 불교시대사.
- 스가누마 아키라(菅沼 晃), 이지수 역. 1990. 『산스크리트의 기초와 실천』. 서울: 민족사.
- 에마뉘엘 레비나스, 서동욱 역. 2003. 『존재에서 존재자로』. 서울: 민음사.
- Chatterjee, S. C. and D. M. Datta, 김형준 역. 1999. 『학파로 보는 인도 사상』. 서울: 예문서원.
- 三枝充恵 編. 1974. 『講座 仏教思想 第二卷 認識論 論理学』. 東京: 理想社.
- Adamson, Peter, & Ganeri, Jonardon, 2020. *Classical Indian Philosoph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ttori, Masaaki. 1968. *Dignāga on Perception, being the Pratyakṣapariccheda of Dignāga's Pramāṇasamuccaya from the Sanskrit fragments and the Tibetan vers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Harvard Oriental Series 47).
- Matilal, B. K. 1986. *PERCEPTION: An Essay on Classical Indian Theories of Knowled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2. *Mind, Language and World*. ed. by J. Ganer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5. *Epistemology, Logic, and Grammar in Indian Philosophical Analysis*. New Delhi: Oxford University Press.
- Moriyama, Shinya.(Ed). 2020. *Transmission and Transformation of Buddhist Logic and Epistemology in East Asia*. Wien: Arbeitskreis für Tibetische und Buddhistische Studien Universität Wien.
- Steinkellner, E. 2017. *Early Indian Epistemology and Logic : Fragments from Jinendrabuddhi's Pramāṇasamuccayaṭīkā 1 and 2*. Tokyo: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Buddhist Studies (Studia Philologica Buddhica Monograph Series 35).
- 강성용. 2004. 「Pramāṇa」와 「Pratyakṣa」에 대하여, 『인도철학』 16: 129-148.

- 강형철. 2013. 「니야야-상키야의 감관도달설에 관한 몇 가지 논의들」, 『인도철학』 38: 151-190.
- 박기열. 2016. 「불교인식론에 있어 판단의 문제」, 『불교학연구』 48: 93-118.
- \_\_\_\_\_. 2018. 「니야야 학파의 인식수단과 인식결과에 대한 지넨드라뭇디의 검증」, 『인도철학』 52: 75-110.
- 박대용(동광). 2020. 「『쁘라마나삼웃짜야(브릿띠)』 1.21-24에서 디그나가의 바이쉐시까학과 지각론 비판」, 『불교학연구』 62: 83-106.
- \_\_\_\_\_. 2021. 「디그나가의 미망사학과 지각론 비판」, 『불교학보』 95: 9-31.
- 이지수. 1993. 「正理學派의 4가지 인식방법(pramāṇa)-<正理經> I.1. 수뜨라 1~8에 대한 Vātsyāyana <疏>의 譯註」, 『인도철학』 3: 29-54.
- \_\_\_\_\_. 2003a. 「正理學派의 인식방법론(I) - Keśavamiśra의 Tarka-bhāṣā'Pramāṇa'章의 解釋」, 『인도철학』 12(2): 1-62.
- \_\_\_\_\_. 2003b. 「正理學派의 인식방법론(II)」, 『인도철학』 13(1): 1-37.

Gautama\_Nyāyasūtra with Vātsyāyana's Nyāyabhāṣya

[http://gretil.sub.uni-goettingen.de/gretil/1\\_sanskrit/6\\_sastra/3\\_phil/nyaya/nysvbhu.htm](http://gretil.sub.uni-goettingen.de/gretil/1_sanskrit/6_sastra/3_phil/nyaya/nysvbhu.htm)  
(2021.9.19. 검색)

## Dignāga's criticism on the Theory of the Naiyāyika

Dae Y. PARK (Ven. Dongkwang)

(Research Prof., Academy of Buddhist Studies, Dongguk University)

This essay is a follow up investigation on Ernst Steinkellner's newly restored Sanskrit text (2005) regarding the criticism of the theory of perception (*pratyakṣa*) of the Naiyāyika, which is referenced regularly in the first chapter of Dignāga's (ca. 480-540) work, *Pramāṇasamuccaya*(*vṛtti*) (PS(V)) 1.17-20.

In PS(V) 1.1-12, which belongs to the first of Dignāga's definition of perception (*pratyakṣa-lakṣaṇa*), is as follows – PS 3cd, “*pratyakṣam kalpanāpōdham nāma jātyādiyojanā* ||(Perception is a combination of [direct perception, excluding discernment] name and kind, etc.)”– Dignāga's conclusion contains the theory of non-separate which asserts that the means, results, and actions of cognition are not different from each other. What follows is *Vādavidhi* (kk. 13-16) ⇨ Nyāya School (kk. 17-20) ⇨ Vaiśeṣika School (kk. 21-24) ⇨ Sāṃkhya School (kk. 25-33) ⇨ Mīmāṃsaka School (kk. 34-44). In PS(V) 1.17-20, the following passage from the Nyāya School's *Nyāyasūtra* (NS) is of particular importance – NS 1.1.4, “*indriyārthasamnikarṣōtpannam jñānam avyapadeśyam avyabhicāri vyavasāyātmakam pratyakṣam* ||(Awareness is recognition caused by direct contact between a sensory organ and an object. Thus, it is impossible to express, free of error, and naturally determined.)”– This thesis will demonstrate that the perceptual theory

expressed in this passage is incorrect. This will be shown by pointing out the contradiction (*doṣa*) that exists between these three propositions.

Shortly after Dignāga's death, Uddyotakāra (ca. 550-610) of the Nyāya school raised an objection to Dignāga's criticism based on *Nyāyavārttika*. In addition, this rebuttal (*uttarapakṣa*) for this counterargument has led to careful logical developments by Dharmakīrti (ca. 600-660) and Jinendrabuddhi (ca. 725-785), etc., however that issue will not be dealt with here. Therefore, this thesis provides a preliminary review, which focuses on the contents of NS 1.1.4 of the Nyāya School, which was the object of Dignāga's criticism. Following this is a review of Dignāga's criticism as it appears in PS(V) 1.17-20.

**Key words** : Dignāga, Vātsyāyana, Naiyāyika, *Pramāṇasamuccaya*(*vṛtti*), *Nyāyasūtra*, *pratyakṣa*, *saṃyoga*

2021년	9월 11일	투고
2021년	10월 4일	심사완료
2021년	10월 6일	계재확정